

구약성서 문헌 연구를 위한 양식비평: 창세기 28장 10-22절을 중심으로*

소형근(서울신대)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 본문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공동체에서 읽히고 해석되며, 종교적 실천과 신앙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성서 본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전적인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양식비평(Formkritik, Gattungskritik)이다. 양식비평은 본문을 구성하는 단위들을 그 문학적 형식과 전승적 기능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성서 본문이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 속에서 형성되고 사용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양식비평은 본문이 담고 있는 형식(Form)과 장르(Gattung), 그리고 그것이 실재하던 사회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구약성서의 신학들과 공동체의 구조, 역사와 제의(예배) 전통을 이해하는

* 이 논문은 2025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데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세기 28장 10-22절을 중심으로 양식비평(형식비평과 장르비평)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창세기 28장 10-22절은 야곱이 벵엘에서 하나님의 계시(Offenbarung)를 받고, 특정 장소를 성소(Heiligtum)로 삼으며, 서원(Gelübde)을 드리는 장면을 포함한 야곱 전승(Überlieferung des Jakobs)의 핵심 본문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다양한 문서층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먼저 문헌비평(Literarkritik)을 통해 문서의 층들을 분류할 것이고, 이 문헌비평적 분석을 토대로 각 문서층의 형식과 장르를 식별하며, 그에 담긴 전승사적, 신학적 기능과 의미를 조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구약성서 본문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본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기억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시에 양식비평이 지닌 해석학적 가치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구약성서 본문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해석학적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양식비평¹ 연구의 시작과 기본 개념들

1) 양식비평의 출현 배경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독일 신학계에서 구약성서 해석의 중심은 단연코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이었다. 이 이론은 벨하우

1 그동안 구약학자들이 사용해 온 ‘양식비평’이라는 용어는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독일계 구약학자들은 ‘양식비평’을 ‘Formkritik’과 ‘Gattungskritik’으로 구분하여 사용해 왔고, 영미계 학자들은 이 둘을 대체로 통합하여 ‘Form Criticism’으로 사용해 왔다. 본래 Form과 Gattung은 차이가 있으나, 학자들이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며, ‘Formkritik’을 ‘형식비평’으로, ‘Gattungskritik’을 ‘장르비평’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을 통합하여 ‘양식비평’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젠(J. Wellhausen)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그는 구약성서 내의 문학적 모순과 반복을 다양한 자료(J, E, D, P)의 편집 결과로 설명했다.² 문서설은 본문 비평(Textkritik)과 문서 분석을 통해 성서가 단일 저작이 아닌 다양한 전승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본문을 지나치게 네 자료를 기초로 한 문헌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한계를 낳았다. 본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사용되었는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 가운데 등장한 것이 바로 양식비평이었다.

2) 양식비평을 위한 기본 개념들

양식비평은 성서 본문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들을 문학적 형식과 전승의 역사 속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문서가설을 통해 다양한 문서 자료들이 ‘최종 형태’인 오경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양식비평 방법론은 본문의 ‘최종 형태’ 이전에 존재했던 구전 전승의 구조와 기능을 추적함으로써 성서 본문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양식비평은 궁켈(H. Gunkel)을 중심으로 학문적 체계를 세우게 되었고, 이후 모빙켈(S. Mowinckel)과 알트(A. Alt)와 베스트만(C. Westermann)에 의해 양식비평이 수정, 발전을 거듭했으며, 폰 라트(G. von Rad)와 노트(M. Noth) 등의 학자들에 의해 양식비평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혹은 또 다른 연구비평방법과 결합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개념들이 바로 ‘형식’, ‘장르’, ‘삶의 자리’, ‘전승’(Überlieferung), ‘전승사’(Überlieferungsgeschichte), ‘전통사’(Traditionsgeschichte)이다.

2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6. Ausgabe) (Berlin: Walter de Gruyter, 1927), 28-38.

(1) 형식(Form) & 장르(Gattung)

‘양식사’ 혹은 ‘양식비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Formgeschichte/Gattungsgeschichte’ 혹은 ‘Formkritik/Gattungskritik’을 혼용해 왔다.³ 양식비평을 하는 학자들조차도 그동안 ‘형식’과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양식비평의 선구자였던 궁켈은 ‘장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형식’과 ‘장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 궁켈에게 있어서 ‘장르’는 형식이나 기능이나 내용을 포괄하는 다소 유동적인 개념이었다.⁴ 그러나 시편과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형식’과 ‘장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구약학자는 베스터만이였다. 그는 개별 시편을 분석하면서 먼저 그 시의 구조적 틀이나 내적 구성(예, 서론-탄원-신뢰 고백-응답 요청-찬양 등)을 ‘형식’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 이 시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장르’를 규정했다. 예를 들면, 탄원시(Klagelied)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며, 동시에 개인 혹은 공동체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특정한 기능을 가진 ‘장르’로 설명할 수 있다.⁵ 베스터만의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용어상의 정리를 넘어서 양식비평이 문헌비평 및 신학적 기능 분석과 결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시편에 대한 분석에서 “구조적 전개”(formale Gliederung)와 “장르적 분류”(Gattungszuordnung)를 구분함으로써 시편 본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석을 가능케 했다.⁶ 이러한 분리는 이후 게르스텐베르거(E. S. Gerstenberger)에게 계승되었으며, 시편 및 예

3 M. 드라이차 외 2인, 『구약성서연구 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2), 148.

4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4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1-31.

5 C. Westermann, *The Praise of God in the Psalms* (trans. Keith Crim)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1-5.

6 윗글, 35-36.

언 문학의 장르 연구에서 중요한 해석학적 기초가 되었다.⁷ 결국 베스터만은 양식비평의 범주를 단순히 문헌적 유형 분석에서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기능을 해석하는 통합적 성서해석 방법론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문헌과 신앙, 구조와 맥락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양식비평이 여전히 유효한 구약성서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과 ‘장르’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다. ‘형식’은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본문 단위의 언어적 형태”로 규정하고, ‘장르’는 본문의 바탕에 있는 추상적인 전형(Muster)으로 해석할 것이다.⁸ 그리고 형식비평(Formkritik)과 장르비평(Gattungskritik) 또한 구분할 것이다. 형식비평은 성서 본문을 소규모 문학 단위(Kleineinheit)로 나누어 각 단위가 가진 문학적 형식과 정형 구조(반복, 평행법, 도입구 등)로 분석할 것이며,⁹ 이에 비해 장르비평은 본문이 속한 문학적 장르를 식별하고, 그 장르가 사회적, 종교적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술할 것이다.¹⁰

7 E. S. Gerstenberger, *Psalms(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Eerdmans, 1988), 5-9.

8 윗글. 크뤼제만(F. Crüsemann)은 ‘장르’를 ‘양식’의 상위개념으로, 그에 비해 ‘양식’은 하위개념으로서 본문 내에서 서로 상이한 표현들로 구분한다. F. Crüsemann, *Studien zur Formgeschichte von Hymnus und Danklied in Israel* (WMANT 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13-14, 각주 1.

9 C. Westermann, 윗글, 23-28.

10 S.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vol. I) (trans. D. R. Ap-Thomas) (Oxford: Blackwell, 1962), 23-29, 42-61; J. Barto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30-44. ‘형식비평’이 형식 중심의 분석 도구라면, ‘장르비평’은 해당 형식을 사회적, 종교적 장르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형식비평’이 개별 단위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에 집중했다면, ‘장르비평’은 그러한 형식들이 속한 범주 전체의 사회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에 관심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해석학에서는 이 둘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2) 삶의 자리(Sitz im Leben)

장르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삶의 자리”이다. 이 용어는 궁켈이 본문의 기원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한 문학 단위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사회적, 종교적, 제의적 환경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¹¹ 예를 들어, 탄원시는 개인의 고난(병, 적의 공격, 억울함 등)이나 공동체의 재난(기근, 전쟁, 포로, 국난 등) 상황에서 성소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드리는 기도였고, 찬양시는 제의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부른 노래였다. 또한 시편 47편이나 시편 93편과 같은 제왕시의 삶의 자리를 ‘야훼 즉위식’(H. Gunkel; S. Mowinckel), ‘언약 갱신 축제’(A. Weiser), ‘왕실의 시온 축제’(H.-J. Kraus)로 이해하기도 했다.¹² 이런 삶의 자리는 문학 양식이 추상적 분류가 아닌 실제 공동체의 삶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궁켈의 뒤를 이은 베스터만과 게르스텐베르거도 이 개념을 더욱 심화시켜 본문의 기능적 위치와 공동체 내 제의적 사용을 통해 장르와 신학을 연결하려 했다. 즉,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는 양식비평이 단지 문헌비평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성서 본문이 살아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조명하는 신학적 도구가 되게 했다.¹³ 이로써 성서 연구는 본문 이면의 역사나 저작 과정뿐 아니라, 본문이 형성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했다.¹⁴ 삶의 자리 개념은 이후 전승(사)비평, 사회학

11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8-10.

12 M. 드라이차 외 2인, *윗글*, 185-186. 학자들이 분류하는 제왕시의 삶의 자리로 언급되는 ‘야훼 즉위식’, ‘언약갱신축제’, ‘왕실의 시온축제’는 구약성서 본문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다.

13 C.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ans. Keith R. Crim)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15-25; E. S. Gerstenberger, *윗글*, 3-5.

14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적 성서해석, 예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분석 도구로 수용되었다.¹⁵

(3) 전승(Überlieferung), 전승사(Überlieferungsgeschichte),
전통사(Traditionsgeschichte)

‘형식’과 ‘장르’와 ‘삶의 자리’의 개념은 전승사적 이해로 나아가게 했다. 먼저 전승(Überlieferung)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넘겨 주다’라는 의미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두 혹은 문서로 하나님의 계시와 공동체의 신앙적 해석을 세대를 거쳐 전달한 과정을 말한다.¹⁶ 전승은 본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신앙의 핵심, 반복적인 제의, 상징 구조, 집단적 기억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구약성서 내에 언급되는 전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사적 뿌리이다. 전승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에 뿌리를 둔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이다. 둘째, 공동체적 성격이다. 전승은 공동체 내에서 보존되고, 해석되며, 신앙 형성과 제의 실천의 핵심을 이룬다.¹⁷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9절의 ‘쉐마 전승’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대 간에 반드시 전해야 할 신앙 고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동적인 성격이다. 전승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정되거나 재구성 된다.¹⁸ 예를 들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사회적 약자와 정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 요청으로 수정, 재구성한다(신

160-162.

15 R. Rendtorf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90.

16 J. Ch. Gertz,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Ein Methoden- und Arbeitsbuch* (5. Aufl.) (UTB: Quelle & Meyer, 2016), 127.

17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Tübingen: Max Niemeyer, 1957), 166-180.

18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1962), 114.

24:17-22). 넷째, 기억의 기능이다. 전승은 과거 사건을 현재에 재현함으로써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시킨다.¹⁹ 예를 들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제의적으로 기념하는 연례 절기가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과거에 구원받은 자들이었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부모 세대가 출애굽 사건을 설명함으로써(출 12:26-27) 기억이 세대 간에 전승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성서의 전승은 단지 기록된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신앙의 흐름으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렇다면 ‘전승사 연구’란 무엇인가? 전승사적 연구방법에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전승사’(Überlieferungsgeschichte)와 ‘전통사’(Traditionsgeschichte)이다. ‘전승사’는 성서학에서 특정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편집되며, 전달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비평학적 연구방법이다. 이 용어는 문자 그대로 전승의 역사를 의미하며 본문의 문헌학적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성서 본문이 단번에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반복적인 편집(Redaktion)과 보완(Zusatz)과 재구성(Wiederaufbau)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전승사’는 문헌비평(Literarkritik)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며, 본문 내에서 확인되는 편집층, 반복, 문체의 변화 등을 통해 복수의 전승 단계와 그 기능을 구분하려 한다. ‘전승사’는 ‘구술 전승’에서 ‘문서 전승’으로 다시 ‘편집’이라는 과정을 추적하게 한다. 예컨대, 출애굽기 14장은 고대 이스라엘 전승 중 핵심 사건인 홍해 도하를 다루고 있으며, 이 본문은 다양한 전승들이 중첩되고, 편집된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제사 본문(P)(1-4절)과 이집트 군대의 규

19 W.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98-101.

모를 알려주는 엘로힘 본문(E)(7절)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묘사하는 야훼 본문(J)(10-14절)과 야훼의 특별한 통제를 강조하는 제사 본문(P)(15-18절)과 자연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구두 전승 본문(21-23절)과 야훼의 직접 개입으로 이집트 군대를 혼란케 하는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의 결합 본문(JE)(24-25절)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제사 본문(P)(26-29절)이 여러 차례의 편집과정을 통해 지금의 출애굽기 14장이 되었다고 추적하는 것이다.²⁰ 하지만 전승사적 분석은 본문이 어떠한 자료(Quelle)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가 이후 세대에 의해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전승되었는가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단순한 역사 재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본문이 신학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성서의 해석학적 층위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²¹ 오늘날 ‘전승사’는 본문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과 통합적으로 사용되며, 성서 본문의 구성과 전승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²² 이에 비해 ‘전통사’는 성서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 사상이나 공동체의 믿음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고, 편집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전체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구속 신앙의 핵심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사는 출애굽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해방 사건에서 점차 신학적 고백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추적한다. 초기에는 야훼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출 12:51; 13:9, 14 등)는 간단한 구두 전통이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야훼의 주권, 계약, 율법 수여, 성막 건설 등과 덧붙여지면

20 H. Holzinger, *Einleitung in den Hexateuch mit Tabellen über die Quellenscheidung* (Freiburg: Mohr, 1893), 7.

21 E. Blum, “Die literarische Verbindung von Erzvätern und Exodus: Ein Gespräch mit neueren Endredaktionshypothesen”, *VT* 44 (1994), 4-28.

22 J. Barton, *윗글*, 37-45.

서 출애굽 사건이 구속사와 언약 신학 등으로 발전되어 갔다. 즉, 출애굽 이야기는 초기에는 축제나 제의 속에서 회상되던 장르였으나, 후대에는 예언자적, 율법적, 묵시적 색채를 띠며 의미가 확장, 재편되었다.²³ 또한 신명기 12장의 제의 중앙화(Kultzentralisation)는 초기 이스라엘이 가졌던 다양한 산당 전통과 지역 제사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반영한 입법에 해당한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통합을, 신학적으로는 야훼 임재의 집중과 우상 숭배 금지라는 신학적 발전과 확장을 드러낸다. 종합하면, 전승사와 전통사는 양식비평이 제공한 장르 및 삶의 자리의 구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 발전적 시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양식비평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승사가 본문 전달 경로(구두→문서→편집)에 관심을 두었다면, 전통사는 본문이 담고 있는 신앙 전통의 발전에 관심을 두었다. 이로써 구약성서 본문은 단일한 기원의 산물이 아니라, 다층적 의미와 전승과 전통의 흔적이 축적된 유기체로 이해되며, 해석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하게 되었다.

(4) 문헌의 구술적 기원과 양식비평의 전제

양식비평은 성서 본문을 단일하고, 고정된 문헌으로 보기보다는 살아 있는 공동체의 역사적 삶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구술 전승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전환에서 출발했다. 이는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구술 양식들 — 예를 들어, 이야기, 시편, 격언, 법조문 등 — 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며 구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띠게 되었다는 전제를 가진다.²⁴ 이러한 전제는 근본

23 M. Noth, *윗글*, 10-18.

24 H. Gunkel, *Genesis übersetzt und erklä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1), xxvi-xxix.

적으로 성서 문헌의 구술적 기원(oral origin)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문자 문화보다 구술 문화에 더 의존하던 공동체였고, 이는 종교적 경험이나 역사적 사건이 문서화 되기 이전에 먼저 이야기되고 노래로 불리며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²⁵ 예컨대, 출애굽 사건은 처음부터 역사서의 구조 안에서 기술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제의와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구전되면서 점차 서사화되고 문서화되었다. 이처럼 성서 본문은 기록 이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생성되었다는 관점이 양식비평의 핵심 전제를 이룬다. 양식비평은 이러한 구술적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본문을 ‘형식’과 ‘장르’라는 단위로 나눈다. 형식과 장르는 일정한 구조와 정형 표현, 반복되는 기능을 가진 본문 단위로, 그리고 ‘승리 선언’, ‘탄원시’, ‘우화’와 같은 것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형식과 장르는 단순히 문학적 형태뿐 아니라, 그것이 생성된 공동체의 사회적, 종교적 기능을 반영한다.²⁶ 구전 전승의 존재는 본문에 나타난 다양한 반복, 정형화, 삽입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본문이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일정한 전승의 흐름 속에서 살아 움직이던 말의 유산임을 보여준다. 양식비평은 이러한 언어적 유산을 분석함으로써 본문이 당시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밝히는 것이다.²⁷

25 S. Niditch, *Oral World and Written Word: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1-12.

26 C.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23-29.

27 J. Barton, *윗글*, 35-40.

3. 창세기 28장 10-22절의 비평 방법 예시

구약성서 연구방법에서 양식비평(형식비평과 장르비평)을 다루려면 먼저 선택된 성서 본문에 대한 문헌비평적 연구를 통해 본문의 통일성 여부와 개별 언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단락에서는 해당 본문에 대한 문헌비평(Literarkritik)을 먼저 살펴도록 할 것이다. 구약 성서에는 다양한 문학 유형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이야기, 역사 보도, 목록, 계약문서, 법전, 시문학, 예언문학, 지혜문학, 묵시문학 등이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양식비평을 위한 모든 형식과 장르를 다룰 수 없기에 드라이차의 저작을 참고하길 바라며,²⁸ 여기서는 이야기체 문학 유형의 본문으로 양식비평(형식비평과 장르비평)을 다루도록 하겠다.

1) 문헌비평(Literarkritik)

(1) 서론

창세기 28장 10-22절은 야곱 전승의 중심 본문으로 야곱이 벵엘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서원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본문은 언뜻 하나의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다양한 전승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복합 본문(Komposittext)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문헌비평적 접근은 창세기 28장 10-22절을 네 개의 문서층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문헌 단위의 기원과 신학적 의도를 밝히려 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네 개의 문서층 구분을 중심으로 본문에 나타난 문헌적 이질성과 편집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28 M. 드라이차 외 2인, *윗글*, 153-183.

29 G. Fohrer 외 4인,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Methodik* (Heidelberg: Quelle & Meyer, 1973), 177-192.

(2) 본문 구성: 네 개의 문서층

창세기 28장 10-22절은 아래와 같이 네 개의 문서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⁰

A 문서층: 창 28:10-12, 17-18, 20-21a, 22a
B 문서층: 창 28:13-16, 19
C 문서층: 창 28:21b
D 문서층: 창 28:22b

① A 문서층(창 28:10-12, 17-18, 20-21a, 22a)

해당하는 본문은 창세기 28장의 야곱 전승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러티브이면서 가장 오래된 전승층이다. 10-12절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한 장소에 도착한 상황을 묘사하며,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מלאכי אלהים)이 등장하는 초기 신현현 전승이 나온다. 17-18절은 신현현 상황에 대한 야곱의 반응(17절, “두렵도다. 이곳이여”)이 묘사되면서 야곱은 “돌”을 세우고(18절), 신성한 장소로 규정하기 위해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18절). 20-21a절에서 이때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 조건적 서원을 약속한다. 야곱은 이 조건이 응답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본문들은 전형적인 야곱의 벤엘 체험 전승으로 보이며, 신비적인 체험과 제의적 반응이라는 고대 근동의 신전 문학적 요소들과 연결된다.³¹ 이 A 문서층은 ‘꿈’, ‘장소의 신성화’, ‘제의 기원 이야기’로서 기능하는데, 이 A 단락은 E 전승에 가까운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³²

30 윗글, 177, 185, 192.

31 H. Gunkel, *Genesis*, 310-312.

32 H. Holzinger, 윗글, 3; C. Westermann, *Genesis 12-36* (BKAT I/2) (Neukirchen:

② B 문서층(창 28:13-16, 19)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계시 장면과 장소 이름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편집자 혹은 후대 전승이 삽입된 신학적 확대 본문에 해당한다. 13-15절은 야훼의 자기 계시이면서 족장과 맺었던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16절은 야곱이 자각하면서 놀라는 내용이다(“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9절은 “벧엘”(Beth-el)이라는 새로운 지명을 부여한다. B 단락은 신학적으로 정돈된 야훼의 약속 공식(땅, 자손, 함께 하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J 전승에 가까운 표현들로 간주된다.³³ 특히, 13-15절은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의 족장과 맺은 약속이라는 주제로 연결된다.³⁴

③ C 문서층(창 28:21b)

이 본문(“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은 짧은 구절이지만, 야곱의 서원 맥락과는 다소 이질적인 어조로 보이며, 종교적 신앙 고백으로 해석된다. 이 본문은 조건적 구조 가운데 유일하게 신앙고백적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법적인 조건절 가운데 나온 고백이 아니라, 야훼와 관계 설정에 대한 신학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후기 신앙 공동체에서 야훼 신앙의 내면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신명기 신학(Dtr)이나 제2성전 시대 전승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³⁵

Neukirchener Verlag, 1981), 453-456.

33 윗글, 3.

34 G. von Rad, *Genesis* (ATD 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282-285.

35 R. Rendtorff, *Das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Problem des Pentateuch* (Berlin: de Gruyter, 1977), 145-150.

④ D 문서층(창 28:22b)

이 본문(“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은 제의적 실천에 대한 언급으로 후대 제사 제도와 십일조 전통을 반영한 구절로 해석된다. 십일조는 신명기(14:22-29)와 레위기(27:30-33) 등에서 후기 제사 전통에 등장하는 제의법의 일부이다. 야곱이 약속한 이 본문은 야곱 서원 전승의 정경화 혹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제의와 연결된 후대 추가일 가능성이 크다. 문헌비평적으로는 제사문서 혹은 후기 신명기 편집층의 흔적으로 본다.³⁶

(3) 종합

이상과 같이 창세기 28장 10-22절을 문헌비평적인 관점에서 네 개의 문서층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각 문서층은 문체적, 신학적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서사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후대 편집자가 전승들을 통합하면서도 특정 신학적 의도를 반영하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조건적 서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약속(13-15절)을 강조하는 부분은 편집자에 의한 신학적 조정의 흔적이다. 결국 창세기 28장 10-22절은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복수의 전승층이 결합된 문헌적 통합의 결과로 봐야 한다. 이러한 문헌비평은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형식비평이나 장르비평으로의 해석적 확장을 위한 기반이 된다.

36 Ch. Levin, *Der Jahw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110-112.

2) 형식비평(Formkritik)

(1) 서론

창세기 28장 10-22절은 야곱이 벧엘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서사로 고대 이스라엘 종교 전통에서 핵심적인 신앙 체험의 기록으로 간주된다. 이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인 신현현(Theophanie), 장소의 신성화(Heiligung des Ortes), 서원(Gelübde), 응답(Antwort)의 구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헌비평을 통해 얻은 결과물(A: 10-12, 17-18, 20-21a, 22a절; B: 13-16, 19절; C: 21b절; D: 22b절)을 토대로 이 본문을 네 개의 문서층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층의 문학 형식과 전승적 기능을 형식비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형식비평의 구조에 해당하는 본문은 A 문서층과 B 문서층 밖에 없다. C 문서층과 D 문서층은 단편적인 내용으로 인해 형식비평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형식비평

창세기 28장 10-22절의 A 문서층에 해당하는 본문(10-12, 17-18, 20-21a, 22a절)은 ‘이야기’(Erzählung)의 구조를 지닌다. 이 이야기의 형식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발견되는 구조로 개인이 위기 상황에서 신적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시 특정한 헌신이나 제사를 약속하는 전통적인 신앙적 서사에 해당한다.³⁷ A 문서층은 서사의 형식적인 구성요소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과정으로 나타난다.³⁸

37 C. Westermann, *Genesis 12-36* (BK I/2), 552-553.

38 윗글, 154. 이야기체의 구성요소를 연구자마다 다르게 구분할 수 있으나, 드라이차는 <발단(문제)-전개-절정(전환)-재난(해결)-종결>로 나누고 있다.

- ① 발단(10-11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에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잠을 잔다.
- ② 전개(12절): 야곱은 꿈을 꾸며, 이 꿈에서 야곱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본다. 즉, 신현현의 장면이다.
- ③ 위기(17a절): 신현현의 결과로 야곱은 두려워한다. ‘두렵다’(𐤀𐤍𐤏)라는 단어가 ‘바브 미완료 연속법’의 형태와 ‘니팔(niphal) 형 분사’로 두 번 반복되어 나온다.
- ④ 절정(17b-18절): 꿈에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고, 아침에 일어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 ④ 결말(20-21a, 22a절):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 서원한다. 이 서원의 결과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A 문서층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서사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인적 신앙 고백의 원형으로 기능했고, 후대에 성소(전) 전승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다.³⁹

B 문서층(13-16, 19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약속하시는 고전적인 신현현 서사 형식을 따르는데 이 구조는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형식과 유사하며, 족장 전승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한다.⁴⁰ 13a절의 ‘신현현’(“나는 여호와와”)은 야훼의 ‘자기 계시’의 형식으로 서사 형식의 ‘발단’으로 볼 수 있다. 13b-15절은 땅과 자손과 보호와 동행의 언약적 약속인데, 이것

39 H. Gunkel, *Genesis*, 310-312.

40 G.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285.

은 서사 형식의 ‘전개’에 해당한다. 16절은 ‘야곱의 반응’으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한다(“내가 알지 못하였도다”[אֲנִי לֹא יָדַעְתִּי]). 이것은 서사 형식의 ‘위기’에 해당한다. 야곱이 잠을 잤던 장소가 야훼가 계시는 곳을 야곱은 몰랐다. 19절은 야곱이 그곳을 “벧엘”이라 명명함으로 장소 전승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은 서사 형식의 ‘절정’⁴¹이자 ‘결말’이다. 이처럼 B 문서층 또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B 문서층 또한 서사 형식의 발단으로부터 결말까지 구성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C 문서층(21b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은 편집자의 추가 설명이며, D 문서층(22b절)은 십일조 규정에 대한 편집자의 추가본으로 제도화된 신앙 공동체의 성소(전) 전통과 제의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3) 종합

위에서 창세기 28장 10-22절의 문서층들 중 A 문서층(10-12, 17-18, 20-21a, 22a절)과 B 문서층(13-16, 19절)의 내러티브 구성요소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형식을 살피게 되었다. 벨하우젠(J. Wellhausen)은 A 문서층을 E 자료로, B 문서층을 J 자료로 분석했는데⁴² E 자료나 J 자료 모두 서사의 구성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C 문서층과 D 문서층은 독립된 문학적 형식을 갖추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1 야곱은 자신의 ‘무지’라는 ‘위기’를 ‘벧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네이밍(naming)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절정’과 ‘결말’로 서사는 끝난다.

42 H. Holzinger, 윗글, 3.

3) 장르비평의 예시

(1) 서론

장르비평은 구약성서 본문이 속한 전승적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 형성되고 사용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창세기 28장 10-22절은 야곱의 꿈, 하나님의 약속, 장소의 신성화, 서원 등 다양한 서사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성은 다양한 장르의 결합체로써 성격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래의 장르비평의 예는 문헌비평적 구분에 따라 본문을 A, B, C, D 문서층으로 나누고, 각각의 장르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장르비평적 관점에서 살필 것이다.

(2) 장르비평

구약성서의 서사적 산문 양식들에는 ‘이야기’(Erzählung), ‘보도’(Bericht), ‘단편소설’(Novelle), ‘역사기록’(Geschichtsschreibung), ‘서신’(Brief), ‘문서’(Urkunde), ‘기원론적 설명’(Ätiologie) 등이 있다.⁴³ 이러한 서사적 산문 양식들 중에서 창세기 28장 10-22절의 A 문서층은 큰 틀에서 ‘이야기’ 장르에 해당한다. “야곱”(10, 18, 20절)이라는 족장과 “하나님의 사자들”(12절)이라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또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A 문서층에는 이 둘 사이에 대화는 없고,⁴⁴ 중간중간에 보고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이야기 장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문서층은 이야기 장르로써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갖추고 있다.

43 M. 드라이차 외 2인, *읽글*, 154-155.

44 족장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들 사이에 대화는 없고, 야곱의 혼잣말만 나온다.

- ㉠ 이야기의 발단(10-11절): 야곱이 도주하다 특정 장소에서 유숙한다.
- ㉡ 문제 제기(12절):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
- ㉢ 위기(17절): 야곱이 두려워한다.
- ㉣ 해소/절정(18절):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 붓는다.
- ㉤ 종결(20, 21a, 22a절): 야곱이 서원하면서 후에 그곳이 성소가 될 것을 선언한다.

그런데 이야기 장르에 해당하는 A 문서층에 또 다른 하위 장르들이 존재하는데, ‘꿈’(Traum, 12절)이라는 장르와 ‘서원’(Gelübde, 20, 21a, 22a절)이라는 장르이다.⁴⁵ 12절은 ‘바야할롬’(בַּיְהוֹלֹם), 즉 ‘그가 꿈꿨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꿈’이라는 장르임을 명확히 알려준다. 구약성서의 꿈들(창 37:5-7; 37:9; 40:9b, 10-11; 40:16-17; 41:1-7; 삿 7:13; 사 29:8 등)은 미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원칙인데 12절의 꿈은 이후 특정 ‘성소’(Heiligtum)와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⁴⁶ 또한 20절 이하에는 ‘서원’이라는 장르가 나온다. 20절은 ‘바이다르 [...] 네테르’(בַּיְדָר [...] נִתֵּר, ‘[그가] 맹세를 맹세했다’)를 사용하여 이 단락이 ‘서원’이라는 장르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이 서원은 조건절 히브리어 ‘임’(עַ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연계되어 있음을 말한다.⁴⁷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로 서원하는 장면은 고대 근동과 고대 이스라엘의 개인적 제의행위로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며, 약속

45 G. Fohrer 외 4인,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Methodik* (Heidelberg: Quelle & Meyer, 1973), 195.

46 윗글.

47 윗글, 195-196.

이행의 전형적인 서원 형태를 따르고 있다.⁴⁸ 이 두 장르(‘꿈’과 ‘서원’)의 삶의 자리는 ‘한 개인의 신앙 실천 공간’과 ‘지역 성소 공동체의 전승 공간’으로 볼 수 있다. A 문서층은 순례자나 여행자가 위기 중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물을 바치는 공간을 반영하면서, 벤허와 같은 지역 성소의 성스러움과 제의적 정통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이 장르들이 사용되었다.⁴⁹

B 문서층(13-16, 19절)에는 야훼의 말씀(13-15절)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반응(16절) 그리고 야곱이 ‘루스’(Luz)를 ‘벤허’(Beth-el)이라고 명명(19절)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B 문서층은 이야기 장르라고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다. B 문서층의 13-15절은 야훼의 일방적인 연설에 가깝고, 16절과 19절은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반응이 전부다. 따라서 B 문서층은 이야기 장르보다 ‘보도’(Bericht) 장르에 가깝다. ‘보도’ 장르는 행동의 연결이나 줄거리 혹은 등장인물의 묘사에는 거의 관심 없고, 개별적인 사건을 간명하게 알려주는 특징이 있다.⁵⁰ B 문서층에는 하위 장르로 ‘계시’(Offenbarung)라는 장르가 나온다. 13절에 야훼는 ‘바요마르 아니 야훼’(יהוה אני יאמך,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훼다’)라며 신적 자기 계시를 선포한다. 야훼는 12절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닌, 13a절에 야훼로 직접 등장하여 미래의 약속을 선언한다(Verheißungsrede). 13-15절에서 야훼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반복하면서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보장한다. 특히, 15절의 “내가 너와 함께 있어(אנכי עמך)”라는 표현이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48 C. Westermann, *Genesis 12-36*, 552.

49 B.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63-66.

50 M. 드라이차 외 2인, *윗글*, 154.

라”(לא אעזובך)는 표현은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보장하는 언약적 선언으로 소위 임마누엘 약속의 전형적인 형태다. 또한 이 계시 장르 안에는 ‘귀환’ 전승이 포함되어 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15절, והשבתיך אל-הארמה הזאת). 바빌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염두한 선언이다. 그리고 B 문서층에 포함된 19절은 장르로 구분하기보다는 장소의 이름을 변경함으로 장소의 특별한 위상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B 문서층의 삶의 자리는 족장에게 주어진 약속이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정당성을 반영하며, 땅에 대한 약속을 통해 땅을 상실하고 회복을 기대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희망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⁵¹ 또한 ‘루스’를 ‘벤엘’이라 개정하여 명명함으로써 제의적 장소로서 벤엘에 대한 종교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이 단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C 문서층(21b절)은 서원의 조건절에 대한 반응이기에 독립된 장르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D 문서층(22b절)은 십일조에 대한 약속으로 제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독립된 장르로 분류하기 어렵다. C 문서층의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יהוה לי לאלהים)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 시편(18:2[히 3절])과 스가랴(13:9)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추정컨대 포로 이후 공동체(혹은 개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신앙의 자리로 볼 수 있으며, D 문서층의 십일조 약속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1 R. Rendtorf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59-60.

(3) 종합

창세기 28장 10-22절은 네 개의 문서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A: 10-12, 17-18, 20-21a, 22a절; B: 13-16, 19절; C: 21b절; D: 22b절). 이러한 네 문서층 가운데 A 문서층은 큰 틀에서 ‘이야기’ 장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야기 장르의 하위 장르로 ‘꿈’(12절)과 ‘서원’(20, 21a, 22a절)의 장르로 소분류할 수 있다. B 문서층에서는 큰 틀에서 ‘보도’(Bericht) 장르로, 그리고 하위 장르로는 ‘계시’(Offenbarung) 장르로 세분화 되었다. A 문서층의 삶의 자리는 순례자의 서원이라는 삶의 자리와 성스러운 지역 성소의 제의라는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다. B 문서층은 포로 이후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통해 십일조를 서원하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C 문서층과 D 문서층은 독립된 장르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을 알 수 있다.

6.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창세기 28장 10-22절을 중심으로 양식비평의 예시를 다루었다. 먼저 양식비평의 출현 배경을 약술했으며, 그리고 양식비평을 위한 기본 개념들인 ‘형식’, ‘장르’, ‘형식비평’, ‘장르비평’, ‘삶의 자리’, ‘전승’, ‘전승사’, ‘전통사’를 소개했다. 양식비평의 예시를 제시하기에 앞서 창세기 28장 10-22절의 문헌비평적 연구 결과가 필요했다. 그래서 문헌비평을 통해 창세기 28장 10-22절을 네 개의 문서층으로 나누었다(A: 10-12, 17-18, 20-21a, 22a절; B: 13-16, 19절; C: 21b절; D: 22b절). 이후 이 네 개의 문서층들을 토대로 형식비평과 장르비평의 예시를 들었다. A 문서층과 B 문서층에서 형식비평을 통해 <발단-전개-위기-절

정-결말)의 패턴을 찾았고, C 문서층과 D 문서층에서는 편집자의 추가적인 설명을 반영한 것이기에 독립된 형식비평의 패턴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장르비평적 연구를 통해 A 문서층은 큰 틀에서 ‘이야기’ 장르를 가지고 있었고, 하위 장르로 ‘꿈’의 장르와 ‘서원’ 장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B 문서층에는 ‘보도’ 장르와 하위 장르로 ‘계시’ 장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C 문서층과 D 문서층에서는 독립된 장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 양식비평의 예시를 들었지만, 양식비평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⁵² 양식비평이 구약성서 연구의 통일되고, 완전한 연구방법이 아니기에 보완적인 연구방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열 외 2인, 『설교자를 위한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 김래용, “시 78편의 양식비평적 분석: 구조, 장르, 삶의 자리, 의도”, 『구약논단』 33집 (2009), 29-48.
- M. 드라이차 외 2인, 『구약성서연구 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2).
- 오택현, “구약성서 양식비평 연구사: 궁켈(H. Gunkel)의 연구와 이후의 발전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제19집 (2003), 5-24.

52 강성열 외 2인, 『설교자를 위한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참고, 67-71. 양식비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양식비평은 본문이 구두 전승에서 문서로 발전했다고 보는데, 구두 전승 단계를 과연 정확히 확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성서가 처음부터 구두 전승으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는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 양식비평은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성서 본문의 삶의 자리가 과연 실제 사건이었던지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삶의 자리에 대한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 일치가 없다는 것도 한계이다. 셋째, 양식비평은 성서 본문의 최종 형태보다 그 이전 단계에 집중함으로 성서의 최종 본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간과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넷째, 양식비평은 성서 본문을 독립된 단위로 취급함으로써 성서 전체의 통일성과 편집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정석규, “양식비평의 역사와 그 전망”, 「구약논단」 제17집 (2005), 118-139.
- Barton, J.,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 in Biblical Stud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_____, *The Nature of Biblical Criticis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_____, “Die literarische Verbindung von Erzvätern und Exodus: Ein Gespräch mit neueren Endredaktionshypothesen”, *VT* 44 (1994), 4-28.
- Brueggemann, W., *Israel's Praise: Doxology Against Idolatry and Id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8).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ollins, J. J.,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14).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Crüsemann, F., *Studien zur Formgeschichte von Hymnus und Danklied in Israel* (WMANT 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Fohrer, G. 외 4인,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Methodik* (Heidelberg: Quelle & Meyer, 1973).
- Gerstenberger, E. S., *Psalms(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Eerdmans, 1988).
- Gunkel, H., *Einleitung in die Psalmen* (4.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_____, *Genesis* übersetzt und erklä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1).
- Hayes, J. H. & Holladay, C. R., *Biblical Exegesis: A Beginner's Handbook*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 Hilber, J. W., *Cultic Prophecy in the Psalms* (BZAW 352) (Berlin: Walter de Gruyter, 2005).
- Holzinger, H., *Einleitung in den Hexateuch mit Tabellen über die Quellenscheidung* (Freiburg: Mohr, 1893).
- Levinson, B. M.,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Mowinckel, S.,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vol. I) (trans. D. R. Ap-Thomas) (Oxford:

- Blackwell, 1962).
- Muilenburg, J., “Form Criticism and Beyond”, *JBL* 88 (1969), 1-18.
- Niditch, S., *Oral World and Written Word: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Noth, M.,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2).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Row, 1962).
- Rendtorff, R.,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_____,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Sheffield: JSOT Press, 1990).
- _____, “The Paradigm is Changing: Hopes and Fears”, *Biblical Interpretations* 1 (1993), 34-53.
- _____, “The Psalms and the Cult: A Form-Critical Reconsideration”, in: *The Book of Psalms - Composition and Reception* (ed. Peter W. Flint and Patrick D. Miller) (Leiden: Brill, 2005), 83-98
- van Seters, J.,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Edinburgh: A. & C. Black, 1885).
- Westermann, C., *The Praise of God in the Psalms* (trans. Keith Crim)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 _____, *The Psalms: Structure, Content and Message* (Minneapolis: Augsburg, 1980).
- _____,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ans. Keith Crim)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_____, *Genesis 12-36* (BKAT 1/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 Zenger, E., “Formen- und Gattungskritik”, in: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5. Aufl.) (Heidelberg: Quelle & Meyer, 2022), 107-110.

검색어

구켈, 양식비평, 형식비평, 장르비평, 삶의 자리, 전승, 창세기 28:10-22

www.kci.go.kr

Form Criticism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Literature: Focusing on Genesis 28:10-22

Hyeong-Geun S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n example of form criticism (Formkritik), focusing on Genesis 28:10-22. It begins by briefly outlining the background of form criticism, followed by an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necessary for this method, including “form,” “genre,” “form criticism,” “genre criticism,” “Sitz im Leben” (life setting), “tradition,” “tradition history” (Überlieferungsgeschichte), and “history of traditions”(Traditionsgeschichte). Before providing an example of form criticism, a literary-critical (Literarkritik) analysis of Genesis 28:10-22 was conducted, which divided the text into four literary layers(A: v. 10-12, 17-18, 20-21a, 22a; B: v. 13-16, 19; C: v. 21b; D: v. 22b). Based on these four layers, examples of form criticism and genre criticism were then provided. In the A and B layers, the typical pattern of beginning – development – crisis – climax – resolution was identified through form-critical analysis. However, in the C and D layers, no independent formal structure could be discerned, as they appear to reflect editorial additions or expansions. The genre-critical study revealed that the A layer primarily belongs to the genre of narrative, incorporating the sub-genres of dream report and vow narrative. The B layer was identified as report literature, with a sub-genre of revelation narrative. In contrast, the C and D layers do not appear to

represent distinct genres. Although this study has presented an example of form criticism, it also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 Since form criticism is neither a unified nor complete approach for Old Testament studies,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complementary methods of interpretation.

key words

Gunkel, Form Criticism, Genre Criticism, Sitz im Leben, Überlieferung,
Gen 28:10-22

투고일: 2025년 05월 09일

심사일: 2025년 06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6월 08일

www.kci.go.kr